

최민선·이승윤 금 3 명중...광주 양궁 '최강 듀오'

〈광주시청〉

〈광주 남구청〉

대통령기 양궁 남녀 개인전 우승
혼성단체전서도 금 추가 2관왕
조선대 이진용 대학부 동메달

남구청 이승윤과 광주시청 최민선이 대통령기 양궁대회 개인전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승윤은 6일 광주국체양궁장에서 열린 제39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 남자일반부 개인전 결승에서 한우탁(인천계양구청)을 상대로 1세트씩 주고받는 접전 끝에 마지막 5세트를 잡아내며 6-4 승리를 거뒀다. 이승윤은 전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통령기대회에서 개인전 최강에 오르며 한국 남자양궁 국가대표 자존심을 지켰다. 그는 지난달 열린 올림픽폐기년 제38회 회장기대회에서 팀 창단 첫 금메달을 따내며 이어 굵직한 대회에서 기량을 유감 없이 선보이고 있다. 최민선은 여자일반부 개인전 결승에서 임해진(대전시체육회)을 6-2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금메달을 수확함으로써 거리별 경기 50m에서 은메달을 수확한 아쉬움을 털어냈다. 이승윤과 최민선은 사·도대항전으로 열린 일반부 혼성단체전에도 광주 대표로 출전, 결승에서 대

전을 세트 스코어 6-2로 꺾고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이승윤은 "광주와 인연을 맺고 회장기에 이어 대통령기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두 기쁘다. 앞으로 열린 실업연맹대회, 전국체전에서도 남보를 전해 광주 남자 양궁을 더욱 빛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응원을 해준 김병내 남구청장님과 남구청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남구청 양궁팀이 창단 첫째 전국 남자 최고의 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팀 동료들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선대 이진용은 대학부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진용은 8강에서 김필중(한체대)를 세트 스코어 7-1로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했으나 김강현(안동대)에 2-6으로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광주선수단은 이번 대회 일반부에서 이승윤, 최민선의 남녀 개인전 금메달, 혼성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기보배(광주시청)가 30m에서 금메달, 이특영이 30m에서 동메달, 최민선이 50m 은메달을 수확했다. 여대부에서도 광주여대 김민서와 이세현이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고, 남대부 조선대 이진용이 개인전 동메달을 보태는 등 고른 활약을 펼치며 광주 양궁의 명성을 과시했다. 한편, 7일~9일은 같은 장소에서 고등부 대회가 열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6일 열린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낸 광주시청 최민선(왼쪽)과 남구청 이승윤.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선수 6명 미니 농구팀의 '신선한 반란'

광주 문화중 매 경기 선수 풀가동...주말리그 권역별 대회 준우승



문화중학교 농구팀이 2021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권역별 대회 준우승을 기념하고 있다. 〈문화중학교 제공〉

창단 첫 8월 왕중왕전 진출

선수 6명 뿐인 미니 농구팀의 신선한 반란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5년 창단한 문화중학교 농구팀이 최근 전북 전주에서 개최된 '2021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권역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문화중은 강호 전주 남중에 82-101로 아쉽게 패했지만 권역별 리그 4승 1패라는 의미 있는 성적을 올렸다. 문화중은 선수가 6명 뿐이다. 김태균·조주영(3년), 구유림(2년), 정유민·박주현·공명재(1년) 등이다. 각 농구를 시작한 선수도 포함돼

있어 최악제로 평가받았다. 준우승까지 갈 수 있는 전력으로 보는 이는 사실상 없었다. 하지만, 문화중은 '2021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호남·대전·제주 권역별 경기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지난 6월 13일 전남 여전중(91-52)과의 경기에서 첫 승을 거뒀다. 이후 6월19일 대전중(69-60), 6월20일 전북 군산중(75-64), 6월 27일 제주동중(82-60)과의 경기에서 파죽의 4연승을 거뒀다. 문화중은 경기 도중 교체 가능한 선수가 없어 매 경기에 모든 선수가 전력으로 뛰다 보니 부상이 많고 피로감도 극도로 쌓인 상태였다고 한

다. 하지만, 주장 김태균을 중심으로 탄탄한 팀워크와 놀라운 정신력으로 난관을 극복했다고 문화중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문화중은 오는 8월 중 개최될 '2021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에 진출하게 됐다. 주말리그 왕중왕전 출전은 2015년 창단 이래 처음이다. 문화중 김서령 교장은 "코로나19로 훈련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최연식 감독과 박찬영 코치의 체계적인 지도와 선수들의 성실한 훈련 참여 덕분에 최고의 성과를 냈다"며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도 선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도쿄올림픽 메달 도전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김서영 "후회없는 경기 펼치겠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수영을 빛낼 준비를 해온 황선우(18·서울체고)와 김서영(27·경북도청)이 후회 없는 레이스를 펼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황선우와 김서영은 코로나 19 유행 여파로 대면 인터뷰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6일 매니저를 통해 영상으로 올림픽을 앞둔 소감 및 준비 상황 등을 밝혔다.



황선우

김서영

황선우는 자신의 첫 올림픽 무대인 도쿄 대회에서 자유형 50m·100m·200m에 계영 800m까지 4개 종목에 출전한다. 3회 연속 올림픽 물살을 가를 김서영은 도쿄에서 주 종목인 개인혼영 200m와 단체전인 계영 800m에 나선다. 지난 5월 올림픽 대표 선발전 이후 진천선수촌에서 담금질을 이어온 황선우는 "현재 컨디션은 70% 정도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는 "주 종목인 자유형 100m와 200m에 초점을 맞춰 훈련하고 있다"면서 "레이스 부분을 끌어올리려 페이스 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올림픽이 큰 무대라 많이 떨린다"면서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성적을 낼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서영은 대표 선발전 이후 제주에서 훈련 중이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맑은 공기 마시며 즐겁게 훈련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김서영은 "도쿄 올림픽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수영을 하도록 내 장점을 살리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

추고 있다"면서 "스피드를 붙여서 올림픽 때 좋은 수영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서영은 "4년이란 시간을 준비했는데 올림픽이 취소되지 않고 연기돼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 이번이 세 번째 올림픽이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이전과는 다르다. 김서영은 "뭔가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한 올림픽은 처음이다. 지난 두 번의 올림픽과는 마음이 조금 다르다"면서 "첫 번째는 거의 막내였는데 이번에는 맏이로 참가하는 부분에서도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김서영은 "남은 기간 올림픽에서 목표는 자신의 기록을 깨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도쿄 올림픽 여자 개인혼영 200m에서 김서영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딸 때 세운 한국 기록(2분08초34)을 넘어선다면 메달 획득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김서영은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후회 없이 경기에 임하고 싶다"면서 "힘든 시기에 좋은 성적으로 좋은 기운을 드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잘 준비해보겠다. 많이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블랙 위도우, 발신제한
- 2관 블랙 위도우, 미드나이트
- 3관 발신제한
- 4관 블랙 위도우, 쿼이어트 플레이스 이번엔 잘 되겠지
- 5관 블랙 위도우,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 6관 블랙 위도우, 크루엘라
- 9관 블랙 위도우, 쿼이어트 플레이스
- 7관 씨네캐슬 미드나이트, 빛나는 순간
- 8관 씨네캐슬 크루엘라, 쿼이어트 플레이스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I
김민서 첼로 리사이틀
일시: 2021. 07. 13.(화)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



GAC 11시 음악산책 4
차진엽의 지구 모자이크화
일시: 2021. 07. 28.(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